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面

社說

李圭貞翁의 高普新設
—朝鮮特志事業界의 異彩—

一

敎育가 어렵다는것은 古來로 傳하는 말이어니와 資本主義組織下에서는 돈을 모으는 어려움을 百으로 表할것 가트면 돈을 쓰는 어려움은 萬으로 表하리만치 用財問題는 더 어려운것이다. 何故오하면 (一)敎育에는 儀偉도 잇고 罪惡도 잇지마는 用財에는 儀偉, 罪惡이 잇는것 아니하고 반드시 그個人의 强力한 意志力을 要하며 (二)用財하는 그方法을 誤하면 그富財에 그치지 안코, 亡身의 禍를 誘致하는수도 잇기때문이다. 이것은 世間의 靑少年中에 그父兄가 너무 만흔 財産을 남기어 주엇기때문에 酒色에 빠저서 「生」을 그릇한 靑少年이 얼마나 만흔가를 보면 누구나 알것이다. 그理由를 說明하기에 이以上의 贅言을 要할배 아니다.

二

이제 慶州에 잇는 李圭貞翁이 七十이 가갑도록 勤勉力行한 蓄積한 百萬의 財産中에서 四十萬圓의 大金을 割하야 高等普通學校 一校를 東洋으로 經營할것을 天下에 宣明한 一事는 翁의 敎育가 決코 偉大한 이 아니어서 意義를 우리에게 주는것인 同時에 難中之至難으로 생각되는 用財의 途에 잇서서도 가장 그宜를 得한것이라고할것이다. 이것을 東西古今을 通하야 보아도 그러커니와 더구나 朝鮮의 現狀에 잇서서는(一)우흐로 先祖에게 對한 道理를 盡하는 點으로 보나, (二)自己一身의 事業價値로 보나 (三)代代孫孫의 光榮으로 보나 (四)社會奉仕의 崇高價値로 보나 關에 敎育機關을 新設하는 事業의 右位를 占할만한 事業은 다시 업기때문이다.

三

그러고 우리는 非凡한 「特志가 社會에 出現할때마다 每樣 그裏面에는 金은 特志가 잇슴을 이저서는 안된다. 平壤白善行女史의 事業에 金은 特志가 잇고, 金琪中崔松雪堂女史의 事業에 金은 特志가 잇드시 寸陰을 애끼고 尺分을 慮人되히 하지아니하는 李圭貞翁으로 하여금 今番의 事業心을 이르키게한데는 만흔 金은 特志가 잇슴을 듯는다. 일즉 東京에 가서 日本大學을 卒業하고 歸鄕한 翁의 令孫李鍾雨君과 밋採雨君의 周圍에서 그를 도흔 靑年有志諸君은 다 翁으로 하여금 今日의 發心을 하는 動機를 지은 이들로서 金은 特志諸君의 榮譽은 翁의 事業과 함께 永久히 傳할것을 우리는 밋는다.

四

翁의 今番 特志는 朝鮮特志事業界에 一異彩를 보하는것은 그가 一校를 單獨으로 經營할 決心을 表明한데 잇다. 此點은 實際에 드러서 보면 十餘萬을 내이기 인 사람으로 二十萬을 내이기는 困難한 境遇가 만허도 四十萬圓, 五十萬圓을 내일수 잇는 實力을 가진 사람으로는 十萬圓, 二十萬圓을 더 내는것

은 그러케 困難한 問題가 아니다. 그러데도 不拘하고, 從來는 共同責任을 지는이 까지는 만흐로 업섯는데 今番 翁의 地位에 잇서서는 單獨責任을 진

...

米、三萬五千噸級의 戰鬪艦二隻起工
三百萬弗의 豫算支出權限을 大統領에 附與件可決

(寫眞은 스氏)

【華盛頓二十九日發電通】米國下院歲出委員會는 代理海相스탄들레ー提督의 要請을 容認하야 秘密會議를 開한結果 三萬五千噸級戰鬪艦二隻을 來年一月一日起工할수잇도록 三百萬弗을 支出할 權限을 大統領에게 賦與하는 案을 可決하엿다

主力艦建造에 對한 海軍長官代理辯明

【華盛頓二十九日發同盟】米國下院海軍委員會는 世界情勢에 對應하야 主力艦二隻建造에 着手할 權限을 大統領에게 賦與하는 法案을 下院에 提出할 方針이라고 解釋되는데 스탄들레ー海軍長官代理는 二十九日午後 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 잇서 主力艦建造는 必要가 잇다고 力說하야 左와 如히 述하엿다 英國政府는 이미 豫算으로서 主力艦二隻의 建造意圖를 表明한以上 米國政府도 均勢를 維持하는 見地에서 同·主力艦二隻의 建造에 着手하드라도 要컨댄 華盛頓條約의 規定에 基하야 代艦建造計劃을 버서나지 안코 建艦競爭을 誘致한다는 非難을 바들리는 안흘것이다

對獨質問的覺書
英閣議에서 檢討
反駁과 挑戰的字句를 廻避코 獨總統의 說明을 要請

【倫敦二十九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 三月三十一日附 回答에 對한 英國政府의 質問覺書는 二十九日 閣議席上에서 檢討를 加하엿는데 外務省原案을 討議함에 當하야 이든外相은 覺書作成에 對한 當局의 方針을 說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外務省은 覺書作成에 當하야 左의 點에 愼重히 考慮하엿다

一、覺書에는 一切 反駁乃至挑戰的 或은 脅威的 字句를 避하고 專혀 히틀러總統의 回答의 徹底的說明을 要請할 宣言이 되게할것

一、全般的으로 英國政府의 協調的態度를 徹底케한 覺書提出의 趣旨가 歐洲平和再建에 잇고 次期聯盟理事會는 來五月十一日 召集되어 로카르노協定善後處置를 中心으로 歐洲平和機構再建問題가 全面的으로 檢討될터이다

右事實에 鑑하야 英國政府의 質問書는 一日이라도 速히 獨逸政府에 手交되어 느저도 五月의 理事會以前에 獨逸政府의 態度를 明確히 해둘 必要가 잇다고 外務省案을 承認하엿다고 하는데 覺書의 中心이되는것은 左의 諸項이라고 보인다

一、베르사이유條約과 國際聯盟과의 關係에 關하야 獨逸政府의 態度는 베르사이유條約은 …

一、西歐安全保障問題 英國政府는 로카르노條約善後措置의 決定을 可能케하기 爲하야 라인란드軍備를 이以上 强化시키지아니할 必要가 잇슴에 鑑하야 獨逸政府는 有事에 關하야 三月三十一日의 覺書에 提示된 保障以上으로 어떠한 제스추어를 示할 用意가 잇는지 또 로카르노締約國은 獨逸政府에 對하야 라인란드要塞構築中止를 要請하엿는데 三月三十一日의 回答에는 何等 言及치아니한 理由如何

一、西歐安全保障問題 히틀러總統은 東部諸國間에 個別的不可侵條約締結의 用意가 잇다는것을 明白히 하엿는데 獨逸政府는 此等諸國에 …

英海軍豫算內容
總額은 一千三十萬磅

【倫敦三十日發電通】英國海軍當局에서 議會에 提出한 海軍追加豫算案內容은 三十日 發表되엿는데 右總額은 一千三十萬磅으로 左記諸費目이 包含되여잇다

一、三百萬磅 … 一九三六年부터 着手되는 建艦費

一、二百十七萬磅 伊에紛爭關係對策維持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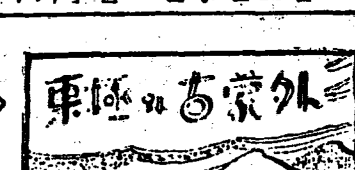
一、二百萬磅 新艦坡要塞費

軍事的理由로본 外蒙의重要性
⑨ 金翰容

◇

다음 蘇聯이 外蒙을 重要視하는 또 하나의 理由는 即 軍事的理由──아마 이것이 最大의 理由일것이다. 그러면 이 軍事的重要性이란 무엇을 意味함인가? 이것은 筆者의 說明을 기다릴것도업시 一般的으로 널리 認識되고잇는바이어니와 이제 簡單한 解說을 加한다면 이러하다. 蘇聯本土와 西伯利亞地方과를 連絡하는 唯一한 交通線인 西伯利亞鐵道는 어떤 意味에서든지 蘇聯에게 잇서서는 더할수업는 重要性을 가젓거니와 特히 軍事的意味에 잇서서는 軍事的 生命線이라고 할수잇슬것이니 바이칼湖以東의 所謂 極東地方의 全赤衛軍에 對한 兵站補給은 이 西伯利亞鐵道一線으로되므로 萬一의 境遇에 이 生命線이 斷絶되는일이 잇다면 極東地方의 全赤衛軍은 그 道路를 斷絶당하는 結果 全軍의 生命은 이로써 完全히 制約될것이 아닌가?

…



軍縮關係常設機關
外務省內에 設置
各國의軍備、軍縮問題의動向、將來對策等 外交的見地에서研究

英、舊獨植民地의 一部讓渡는可能?
植民省서 一一히檢討한結果 融通性잇는 結論到達

【倫敦二十九日發同盟】獨逸政府의 植民地返還要請에 對하야 英國自治領의 首相은 이미 委任統治領을 讓渡할 意가 업다는 旨를 聲明하엿스나 植民省當局은 舊獨植民地에 對하야 一一히 檢討를 加한 結果 事情이 漸次로 西岸라이지에리아(?) 골드코스트사에라레오네(?) 等各植民地를 獨逸政府에 讓渡하드라도 無妨하다는 結論에 到達한것이라고 解釋된다 右植民省當局의 結論은 左와 如하다

一、東部아프리카、케니아南北로데시아 各地方은 카이로에 連絡하는 重要植民地인 同時에 케이프타운 連結하는 關州大陸에 잇서서 植民帝國의 大動脈을 構成하야 事實上 經濟上見地에서 此等地方을 放棄할수는 絶對업다

一、獨逸政府의 舊西南阿非利加 … 現在南阿聯邦政府의 管轄下에 잇는데 同政府는 이미 讓渡에 反對를 表明하고 더욱 獨逸政府의 植民地返還工作에 備하야 再次軍事擴張計劃을 發表하엿다

一、但西部海岸 라이지에리아골드코스트 兩植民地는 舊獨逸植民政策上 支障을 生하는 地方은 아닌 故로 시에라레오네와 함께 條件如何로는 獨逸政府에 讓渡할것이다 獨逸政府는 現在同地方으로부터 果物을 輸入하고 잇는 關係로 아마 受諾하는 回答을 與할것이다

蘇極東軍備强化
潛水艦三隻解體輸送

【哈爾賓三十日發同盟】蘇聯의 極東軍備强化에 關心하고잇는때 當地某所에 入電한 情報에 依하면 三月上旬 潛水艦三隻을 解體하야 海蔘威에 回送하고 또 數回에 亘하야 軍用列車를 經由하야 東

◇

特別議會 自今日召集
戒嚴令下에 開幕
各會派모다政府支持態度로 重要議案의通過는前途樂觀

【東京電話同盟】第六十九特別議會는 마침내 五月一日에 召集을 보게되엿다 그리고 今議會의 議事日程은 마침내 …

議事順序

【東京電話同盟】第六十九特別議會의 議事順序는 左와 如하다

▲五月一日(召集日) 貴族院＝午前九時 參集하야 … 成立케하고 衆議院＝午前九時 參集하야 正副議長의 選擧를 行함
▲二日 貴族院＝無會議 衆議院＝午前十時本會議를 開催하고 正副議長의 就任인사가 잇슨後 議席을 決定하고 部屬 …
▲三日 日曜日이므로 閉院
▲四日 午前十一時 貴族院에서 開院式을 行하고 式後 衆議院은 本會議를 開하고 …
▲五日 貴族院＝午前十時 本會議를 開하고 …
▲六日 貴族院＝午前十時부터 會議를 開하고 …

日蘇漁業條約改訂에 意見依然히對立
失效前에妥協成立絶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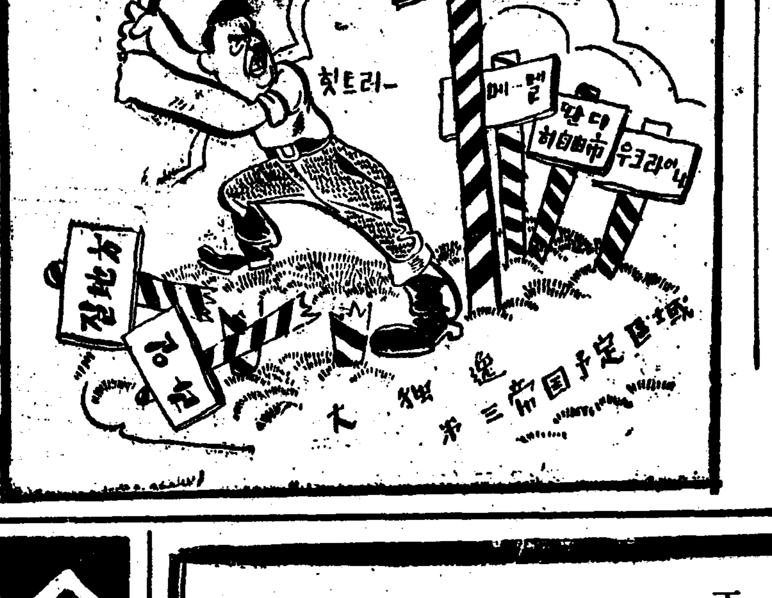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三十日歸朝한 大田大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日蘇漁業條約改訂은 마침내 五月二十七日의 現行條約失效期限을 압두고 到底히 圓滿한 成果를 收得하기 困難한 것이 確實하게되엿슴으로 酒句大使 館參事官은 二十八九兩日에 亘하야 카스클스키(?)次官을 訪問하고 「日本政府의 聲明에 依하야 蘇聯側의 最後的態度를 正式으로 角度에서 檢討한後 八個月에 亘한 交涉도 아직 蘇聯側의 不誠意 …

朝滿鐵道會議

四月三十日부터 三日間開會

第十一回朝鮮、滿洲의 鐵道會議는 四月三十日午前十時부터 三日間 鐵道局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엿는데 出席者는 滿洲鐵道部淸水次長外、同鐵道局員、北鮮管理局員等十四名、鐵道局側運輸課長、工務課長、工作課長、經理課長外二十二名이엿스며 議題는

▲局社一般客貨部分品交換性增大에 關한件
▲客貨車自重輕減方에 關한研究促進의件



時事漫畫 「라인」도 넘어젓다! 자ー이번에는

◆客貨車名稱統一의件外十數件

朝鮮臺灣銀行의 限外發行稅引下
五月一日부터實施

【東京電話電通】大藏省에서는 低金利政策遂行方針으로 일즉 朝鮮銀行及 臺灣銀行의 陳情에 依하야 限外發行稅를 現行四分으로부터 法律에 認定된 最低限度 三分으로 引下하기로되여 五月一日 官報로써 公布하야 即日實施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兩行의 保證限度의 擴張은 內地外地와 日滿間의 通貨統制見地에서 根本的으로 檢討할必要가 잇슴으로 特別議會後 關係當局에서 協議할터이다

夕刊後市況 三十日

◆大阪 短期 蓋記◆

大新	七四七〇	(不變)
鍾新	一五二三〇	(不變)
日産	六九四〇	(一〇高)
東新	三三〇一〇	(不變)

人事·集會

◆會議出席次 三十日午後二時五十分上京
◆東拓總裁(本社取締役) 本社重役 …
日午後二時半府內南米倉町一八二自宅에서還內疑

高價買入 特別 金銀白金 釜山富平町二丁目 吉武金銀店 電話一六四六番 振替釜山五三〇番

風病 大風病은百發百中全治하는有名한藥이本藥院에서發明되엿다 … 釜山府草梁町回春藥院內癩病根絶策研究所 急告

創立明治參拾貳年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高草가루 商標 元賣 釜山府富平町三丁目七 興信製粉所 電話一八四五番 振替釜山三九四八番 地方注文迅速取扱

正確한진자眼鏡은 設備와技術을完備한專門店에서 眼鏡·双眼鏡カタログ進呈 眼科病院御指定 大學堂眼鏡店 京城本町二丁目 電本局(2)二三七五·一一二九

京城 金 金地金銀 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本(2)三〇〇七四番

5月傑作 OKEH 오케ー레코ー드 流行歌 실솔구진봄바람 사나히설흠 金海松

京阪神朝鮮人問題座談會

重工業엔就業除外
賃金差別도雲泥格
大正元年에는不過二百餘人이在留
二世同胞自然增加도三萬

李元道氏 저는대판에 대한대강정세만 말슴하겟습니다 대판에 우리조선사람이 건너오기는 한삼십년전부터 만히거주하다는것은 문헌에남어 잇스나 다귀하되여서 자세히그수를 모르겟스며 근래당국의 통계를 본다면 대정원년도에는 이백사십팔명이 이섯스며 그후부터 대정팔구년 경기조흘때는 도항조명이니 그것도업고 조선사람이나 말도차별도업시 오는사람이면 서로 붓잡아서 직공으로 사용하게 되까닭에 대정십일년에는 일만삼천삼백삼십칠명 대정십오년에는 삼만오천 이백이십구명이나 되엿스며 소화칠년에 가서 십만을돌파하야 그해통계로는 십일만이천 이백이십륙명이 작년 즉소화십년십이월 현재통계로 본다면 이십만칠천백여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십만가운데 소화생이 일만칠백여명이나된다하나 미루어생각한다면 이곳에 와서 자연생산한인구가 한삼만은 그중에 포함되지아니한가합니다 생활상태는 대부분이 곤난하나 보편적으로 조선내지의 국빈소작농층 보다는 나흔편이며 대판은공장지대이만큼공장로동자가이할 자유로동자가 이할 그다음사용업소소형상등을 빼노코는 유변、부녀의 무직자입니다 공장직공중에는기술방면이적고 제일위험한초자(硝子)공장에만습니다 우리동포중에는 이백명식직공을 사용하는대공장을 경영하는이도잇스나 압으로 발전도할듯하며 지금도 중요한 지위를 점령한 종목은 대부분이 소공업에속한「갓도」(ナット)즉 나사공장、『공화스나』자공(쇠공장)、외지수출고무회등이라고 봅니다 상업종별은그저남이한다면 떡아하는식으로 포목상이 일백이십여곳 한약상이삼백칠십여곳 룸펜집도 상당히 만흐며 녀급만이 한이천칠백여명된다는것은 놀랄만한 수자입니다 교육기관으로 이십년전까지는학원과 야학도각처에 잇섯스나 당국에서전부 금지(禁止)를 당하고 지금에 야소교측에서 경영하는 유치원이 세곳、그외에 세곳 합 여섯군데가 잇고、종교로는 야소교와 불교、천도교가 잇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당국에서 각지방단체(地方團體)에서 융화단체까지 해산식히고 교풍회라는것을 조직하여가지고 조선사람을 중심적으로지도하려고 한다 합니다。 아직 대판에는 우리가 융용할 금융긔관이 업는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대판의 정세는 대강 이러습니다。

崔時豊氏 신호지방에는 약사만의 동포가 거주합니다 제주동포의 생활상태역시 대판과 별 차이가 업스나 구십오퍼센트가 근육로동자이고 그남어지 오퍼센트가 상공업자가 될가합니다 신호지방에는 귀국하는사람이 작년부터 늘어가는현상입니다。

盧慶鉉氏 경도는 오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잘 모르오나 그러나 판단지대보다는 다소 일본의 고도(古都)이런만큼 인물이 조흐며 동포들의 대부분은 『유선』(염색 그림)업에 종사하고잇서생활에 그리곤난이엄던것이 근자에 와서는 유선업에 잇서도 『나선업』(염색그림을기계로하게된것)이 발달되물따라그나마 생활의길이 때부되여가는 현상이올시다

鄭泰重氏 간단히경도에잇는우리의동계를말슴드리고저합니다경도에는 약오만명이삽니다 세대호수로는 약팔천호 남자가 약삼만칠천명 녀자가 일만삼천명입니다 직업별로 본다면 시역소구제사업(市役所救濟事業)토목(土木)에 종사하는사람이 팔천명 수공업 직공이 사천명 고용사(雇傭)오백명 정도는 누구던지 동을 띄다가 놓가에 갓다뙬게되여 잇스므로 동후는업에 종사자가 약삼백명 자동차운전수가 약칠백명 동이며 그외에 여러가지로 상인자도 잇습니다 조선인단체가 백여개가 잇스나 대개는 유명무실이고 야학이 삼개소 보육원이 일개소 잇습니다

盧壽一氏 여러분께서 만히말슴해주서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잇는 동포들은 근육로동자가 만흔데 이문제가 제일큰 문제가됩니다 최동식씨 께서 실지 체험담을 말슴해주섯스면조켓습니다

崔東植氏 우리 로동자의 체험담이라야 역시 이중、삼중의 고통바든 이야기겟지요 저는 천기조선소(川崎造船所)에 단엿는데 천기조선소에서는 지금은 새로는 조선사람은 아니씁니다 그뿐아니라 아마중공업공장등에서는 다우리조선사람을 아니씁니다 천기조선소에는 지금 오천여명 직공중에 겨우 조선사람은 한백명될니다 그전 만히잇슬때는 한삼백명이섯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모리 일을 잘하여도반장을가겟은 절대로 못하게되며 차별적대우가 여간아닙니다 그공장에서는 임금이 그리 헐치아니함으로 그공장직공이되면 대개 생활해나가는대는 괴롭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로동하는 동무들중에는 월할「회계」임금만 바드면 그돈이 잇슬동안 몃칠간은 공장에도 아니가고 술마먹고 도라단이며 공장입이쌋버도 가지아니함으로 그까닭에 회사를당하는 사람이 만습니다 그러고 또ー라에부데처서 결을 놋마엇둥 병을 엇고나오는 동무들이 만흔데 뒤치료에대하야도 너무차별이 심합니다 제가해고될때도 현공장과(工場課)에까지상신번이나 다녓스나 결국 여의치 못하엿댓습니다 어데를가던지 조선인로동자에게는 차별대우를 아니하는데가 별로업습니다

李敏昊氏 한가지부중으로 엿을것은 임금은 얼마씩이나됩닛가

崔東植氏 천기조선소는 보통일금이 일원사십전 으로부터 일원오십이전이 초급인대 일을때여마려서 한다면 이원오십전으로부터 삼원오십전까지 도됩니다

崔時豊氏 지금최동식씨말슴하엿금은 일도되지만 천기는일본서도 제일임금이 비싼공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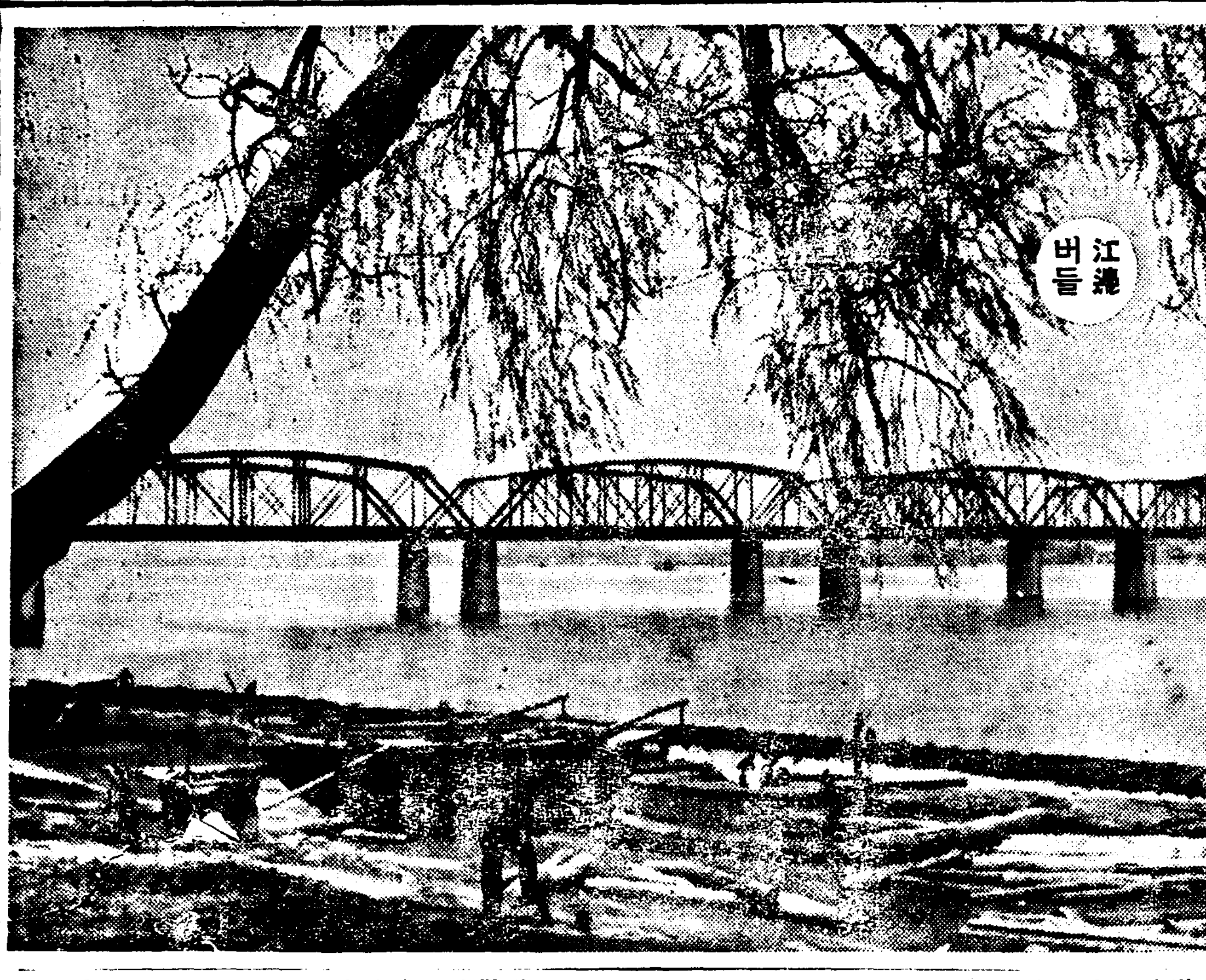
金亮才氏 일본내지는 로동법이며 공장로동자를 위하야는건강보험이 잇서서 병에걸리면 보험치에게는 륙개월동안은병도치료해주고 평시의 임금도 륙할은줍니다 엇재면 조선내지보다는 로동자의 대우가좀 습니다 「평부」로 최고삼사원 버는사람도 업지아니하지만낙 소수이고 대개공장로동자로서 일급이원사십전으로서 단사십전까지 잇습니다 배공들은사십사오세되는 소녀공은 겨우일개월에구원밧게 못밧는사람도만습니다 차별은 여간심하지아니합니다 가령 일본내지인 목십전이라면 조선사람은 사십전밧게 못바드며 임금올리는대도아모리 일을잘하엿자 일본내지인 오전올리면 거우이전식밧게 아니올립니다조 그마한 공장에서는 더차별은 심합니다

(사진은 회석자의 기념촬영)

出席者 (無順) 京都側=盧慶鉉(耶蘇教牧師) 鄭泰重(京都漢藥商組合理事) 高光模(向上舘保育園長) 洪命用(海陸物産商) 郭商洙(自動車運轉手) 盧壽一(고무職工) 大阪側=高麗偉(耶蘇教牧師) 文宗洙(耶蘇教牧師) 李元道(基督青年會理事長) 金琦石(朝鮮佛教布教師) 林正業(製革工場主) 金澤銖(綢緞布木商) 朱鎭淳(醫師) 金俊玉(新聞配達) 申殿熙(古物商) 鄭南局(古物商) 李信街(民衆時報社員) 李貞淑(鷄林幼稚園保姆) 金麥煥(家庭婦人) 金敬中(阪神消費組合長) 神戶側=崔時豊(朝鮮物産商) 金亮才(朝鮮人消費組合長) 李敏昊(藥種商) 崔東植(街頭勞働者) 鄭重孝(職工) 李民善(職工) 主催=本社編輯局長金炯元、販賣部長方肆斗、本社大阪支局長金光洙、支局員朴永壽、京都支局長金禮鎬、神戶支局長薛東鎭 時日=三月十四日午後二時 場所=大阪川口 東海樓

鴨綠江에새鐵橋
淸川江과同時에架設決定
京釜京義兩線軌道도
今年度內로全部改替

철도국에서는 수송량을증가식히는동시에 『스피드·업』을 하기위하야 일즉부터 오개년계획으로 국제로선(路線)의 『레루』를 바구어노코잇는바 경부 경의선의 남어지전부를바꾸어놋는데 드는 경비를금년도 추가예산으로 게상하야 전공사를 금년도안에될수잇는대로 속히완료식히기로결정되엿다 이와함께경부 경의선의 두선의 다리의보강공사도 실시키로결정하고 계속하야 압록강과 청천강(淸川江)에 오개년 계획으로 새로철교를가설키로 결정하엿든데 압록강철교 가설공사에 판하여는 미구에조선만주 량당국에서 공사에관한 협의를 할터로서 현재의 두다리는 비상시용으로 남기여둘방침이다 압록강의 새철교를 놋는데대하여는 처음에는 관문(關門)『턴넬』식의『턴넬』을계획하엿든바 사실상 가설키가 곤난함으로 보통다리를놋키로 결정되엿것인데 이다리가 완성되면 중량열차도 얼마든지 운전할수잇게되야 종래의수송난문제가 철신완화될터이라한다



訴訟"뿌로커"에鐵槌
名簿作成、嚴重團束
不法、脅迫의弊端이잇다고
違法者엔斷乎한處分

법무국에서는 조선변호사령의 개정과동시에 법률사무취급의 취체에대한 제령도 발표하얏는데 법무국에서는 법률사무의 뿌로ー카 기타 소송뿌로ー카의 취체에 대하야 경무국과 협의하야 단연한 취체를 하게되엿다한다 즉검사국과 경찰을 통하야뿌로ー카의 명부를 작성하여 가지고 그들의 취체를 엄중히 할터이라는데 최근조선에는 변호사의 주위에는 소송사건의 소개등을 하는 뿌로카ー와 사법대서인을 대리하야 소송대리를 하는등 뿌로ー가 발호하야 채무자에대한 불법행위와 협박은 물론소송사건을 일부러 맨드러 내는등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가 격증하므로 금후는 경찰서에서 『뿌랙크리스트』를 작정하야 취체를하여 전긔와 가튼 악덕행위를 하는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은물론 법률사무취체에 관한 제령에 의하야 단호한 처단을 할터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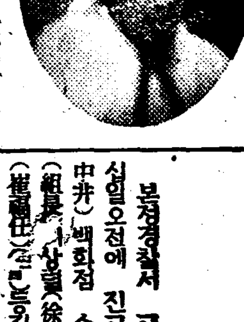
三江對岸에反滿軍襲來
民家에衝火、掠奪
朝鮮側에發砲逃走
急報接하고日滿軍警猛追擊

【警務局着電】삼십일 오후다섯시에 평북 만포진경찰서(滿浦鎭署) 삼강출장소(三江出張所)대안인 만주즙안현제사구(輯安縣第四區)에 장전영(張殿英)의 일파인듯한 반만군 일백이십여명이 침입하야 그곳민가에 불을 질르고 략탈을하고서 조선측으로향하야 총을노코 도주하다는 급보를듯고 삼강출장소 토옥(土屋)순사부장등 조선경관여섯명은 긔관총(機關銃)을가지고 만주직구령(即滿領)방면으로 출동하엿스며 만주즙안현 황백전자(黃柏甸子)민전자(民甸子)에서는 경비대 륙십명이 각기무장하고 토벌하러 출동하엿다한다

택시米突制
今日부터實施

두키로까지 료금오십전을 밧기로 작정된 자동차계량기제도는 드되여 일일부터 실시하기로되엿다 삼십일 오후십이시까지는 종전대로 경성시내에는팔십전을밧고 오월일일령시부터는 단연히 계량기제도의 철저를 하게되것이다

"車天子"
三十日死亡



전북정읍(井邑)에 본부를둔 보천교(普天敎)=일명은훔치교=교주 차경석(車京錫)은 삼십일오후세시오십사분에 병으로 사망하엿다 그는 근이십년동안이나 전조선각지의 우매한 민중들을 속여 허무맹랑한 미듬을 갓게하야 수십만의 교도를 거느리고 경읍에다 궁궐 가튼 집을 지어노코 자칭천자(天子)라하야 한때는 그과세가 평장하엿스나 근년에 이르러는 점점그 미신의 근저가 드러나게되여교세(敎勢)가 쇠잔하고 얼마전에는경찰서에도 수차불려다니기까지하더니 마츰내 그는 허무한 꿈속에서 저세상으로 떠나버리고마것이다 (사진은 차천자)

京畿道結核豫防協會

조선결핵 예방협회(朝鮮結核豫防協會)에서는 결핵예방운동의철저를 기하야 전조선각도에 각도협회를 설립하고 잇는데 경기도결핵 예방협회 에서는 오월일일 오전열시부터 부민관에서 발회식을 거행하리라한다 회장에는 부영(富永)지사가 취임할터이며 규약여원등을 결정한후 구체적 결핵 예방운동에 진출하리라한다

七福丸遺族
和解案一蹴

【仁川】 긔보=목포군해의기선과 범선의 충돌사건은 희생자구명을내이고 그책임이 가장은제중에잇서 인천사법계에서 엄중조사중이며 지난이십구일 가해자인봉선환(鳳成丸)선장으로부터피해자인 유족에게 선주에는 일백칠십오원 떨음일은자에게는오십원 륙인의 가족을 일은자에게는 이백오십원식의 위로금을 지불하겟다 하는것을 맛첫내피해자측에서는 이에불응할뿐아니라방금 최후수속까지 하기로하얏다한다

國境地方郵便物
配達時間短縮
朝鮮側과滿洲側準備完了

압록강연안 국경지방에서 조선밋만주국사이에 오고가는 우편물을 교환하야 서로 통신의 속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신국 밋만주국우무사(郵務司)에서는상당히 조사를하고 잇섯는데 일하여오든데지나지못한다고 드듸여 준비가 되엿스므로 오월일일부터 조선측 혜산진(惠山鎭)중강진(中江鎭)만포진(滿浦鎭)의 세우편국과 만주국측 즙안(輯安)림강(臨江)모아산장백(長白)의 각우편국과의 사이에실시하엿다 그결과 압록강연안지방 조선밋만주국의 두편에 오고가는 우편물은 일일내지 삼일간이나 속달하게되엿다 대옥이 만주국우편국의 형편으로 대금인환(代金引換)가격표긔(價格表記)및 소포(小包)우편물은 취급하지안호나 이삼개월뒤에는 이런우편물의교환도 개시하게될 모양이다

希望업는生活을咀呪
一家族四名自盡
"蔚山郡大峴面의苦海淸算悲劇"

【釜山支局電話】 이십구일 오후세시 경상남도 울산군대현면려천리(蔚山郡大峴面呂川里) 등목(藤木)과수원인부 김도준(金道俊)(四九)은 그과수원에서 살충제(殺虫劑)로쓰는 아비산(亞比酸)수를가지고 자긔집에가서 열네살먹은 큰딸과 여섯살먹은 둘재딸、네살먹은 셋재딸에게 먹이여 죽인후 남어지양을 자긔도 마저먹어 일가네명이 전부 음독자살을 하엿다 원인은 작년사월에 그의 안해가 병으로 죽은후 김도준은 혼자서 세딸을 데리고 쓰라린 호래비 생활을 하여오든터이므로 그들의 생활에 아모 희망도 업는것을 비관하고 자살한것갓다한다。

三中井洋服部(五十餘名職工)
盟罷코會社와對峙
"메이데이"警戒의本町署에서는
卅日主謀者十名을檢束

본정경찰서 고등계에서는 삼십일오전에 진고개 삼중정(三中井)백화점 소속양복직공조장(組長) 상원(上原)(三)과 최보임(崔輔任)(二)등의직공열명을 별안간에 검속하엿다 사건은 지난 이십삼일부터 삼중정 양복직공 오십삼명이 종래에 못한범에이십구전식 주든임금을 삼십오전으로 올려주고 공장에서 흘을 졸듯이 흐젓 륙십여명 일동반(日當班)을 대우가증대나흔 피공반으로 해출것、일반직공을 인격적으로 천대말것과해고수당(解雇手當)을 달라는것등 다가서지 요구조항을내고 동맹휴업을 해오든터인데 공장측에서는 조금도응하주마하엿스나그것만으로는 응할수업다하야 일주일동안이나 그냥일을쉬고 대항해왓는데『메이데이』를 압해두고경찰서에서는 그수모자로인정되는전긔 직공열명을 검속하게되것이라한다

寫眞은救世軍朴少將送別會(卅日夜本社講堂에서)

移出小包郵便狀況

삼월중에 일본내지로건너간 소포우편물의 이출신고수는 오천팔백구십팔건인데 이를사사한결과 무세품(無稅品)으로 결정되것이 사천삼백이십구건이요 면세품(免稅品)이 팔백칠십삼건 유세품(有稅品)은 륙백구십륙건이로 그세액(稅額)은 륙백사십칠원이다 이제 이출(移出)상황을 지방별로보면 다음과갓다

京城一、四七七 慶南七九五 慶北六二四 咸北五七〇 忠南四二五 咸南三九五 平南三八一 全南三七六 全北三〇四 平北二四七 江原一三三 黃海一〇八 忠北六三

滿洲移民積極援助

【奉天卅七日發同盟】 일본내지인과 조선인 부만이민에 대하여는척무성(拓務省)을 비롯하여 관동군 만철 철도총국(鐵路總局)기타 각기관들의 알선으로장당한 성적을 드러내이고 잇는데 당국에서는 광범한 미간지를 경제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미개간지의 급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대규모의 이민을 시켜가지고 오지개발에 『오지개발전에는 이민으로부터 출』라는 것을『모토』로적극적 원조를 하기로되엿다 한다

江界邑一族打殺犯
金官雄死刑判決
高等法院에서確定

작년 일월이십삼일 밤열두시경 평북 강계읍내 서간촌(江界邑西間村)백리범(白利範)의 집에 침입하야 가리 다섯자나 되는 칼을들고 돈을내이라고위협하다가 듯지안하매 백리범을 비롯하야 백의처와 딸 아들일가족네명을 독기로 찍어서죽이고 범행을 감추기위하야 그집에 불까지지른 피고 강계군화경면 지평동(江界郡化京面津坪洞) 김관웅(金官雄)(二七)에 대한 살인강도방화사건공판은 이십칠일 오전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열렷는데 희본재판장은 산택(山澤)검사의 신청대로 상고를 기각하야 원심판결인사형이 확정되엿다

長城事件八名釋放

【長城】 전남경찰부 고등과의활동으로 장성군사창보통학교(長城郡社倉公普)훈도(訓導)나 면을 서회원다수를 검거취조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삼개월동안이나 끌고 취조에취조를 거듭하든바 이제야 사건의 일단락을 지엇슴인지? 지난이십칠일오후일곱시경에 정수홍(丁壽洪)라하람 임태식(任台植)김영긔(金永基)등네명과 그이튼날오후일곱시경에 송한진(宋漢珍)백인환(白仁煥)라학수(羅學洙)송병엽(宋炳燁)등 네명한테도불을 각각불령방임의 서약서를받고 석방하엿다는데 불일간 또석방될 사람도잇스리라하며 사건내용은 보통학교 동창회비로 서적을구

發動船의등살에
砂利실은배顚覆
船夫一名行方不明

【永登浦】 지난이십구일 오후세시경 부내도화정(桃花町)삼구번지 최은쇠(崔銀釗)(三七)가 나루배에다가 자갈(砂利)을 잔뜩실고 부내 여의도정(汝矣島町)압 한강연안을 저어나려 갈지음에 황해도연평(黃海道延坪)방면에서 생선을만재하고 올라오는발동선 두척이속력을내는바람에 파도가 너무거슬어저서참혹하게도 그릇에끼여든최의자갈배는 그만침몰하여버리고 최은쇠는행방불명이 되엿슴으로 급보를바든소할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에서는 목하 시체를찻는중이라고한다

運動競技

籠球의豪華陣
本社後援 聯盟戰迫頭
參加申請은今一日限

籠球朝鮮의 三勇士가 世界올림픽에 處女登場하는 뜻깁흔 이해의 序幕戰! 第六回中等學校及俱樂部籠球聯盟戰은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아래 오는 五月六日부터열리게되엿는데 同聯盟戰을 압두고 市內各中等校專門校와및 俱樂部代表팀은 벌서부터 緊張과 興奮속에 猛練習을 거듭하고잇스니 空前의白熱戰을 展開할것으로 期待되다 이에 出場할 各團體는 今一日午後六時까지 鐘路一丁目四六 籠協事務所로 申請하기를 바라며 對陣抽籤은 當日午後八時부터할터이다

高麗籠球團陣容

高麗籠球團에서는 本社後援의籠球聯盟戰을압두고 陣容을 整備하야 昨年의敗恨을 雪辱할터이라는바 그멤버는 다음과 갓다 그리고 同團의懇談會를 五月三日午後七時에 浮碁樓에서 열기로되엿다한다

▲團長 朴東雲 ▲監督 任黃宰 ▲코취 孫役得 ▲마네저 鄭熙昇 ▲選手 靑東煥 金敦雲 尹正燮 李惠楽 金在春 金容武 徐裕淳 廉仁濟

日本最初의
職業野球리ー그

【大阪電話同盟】 日本最初의職業野球리ー그戰은 二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甲子園球場에서開始한바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一戰 名古屋對大東京의試合은 午前十一時五分부터 名古屋先攻으로開始、結局八對五로名古屋勝 閉戰午後一時十五分

▲第二戰 타이거ー스對金鯱軍의試合은繼續하야 午後一時五十分부터타이거ー스先攻으로開始、三對零으로타이거ー스勝、閉戰午後三時半

▲第三戰 阪急對세네다ー스試合은 午後三時四十八分부터 세네다ー스先攻으로開始、結局九對二로세네다ー스勝

次回올림픽大會
東京開催에暗影

【伯林二十九日電通】 日本을訪問한國際올림픽委員長라투르伯爵은 日本視察後芬蘭體育會에잇는友人에게書信으로『東京의競技場施設과 諸計畫은어느程度까지 滿足하나 八月은炎熱이 높고 空氣濕潤하야 견디슴이 不良할것이며 會期를당기면 장마季節에걸치므로 地理的不便과 同時에 氣候에도 어려운點이잇다』라는旨를 指摘하야 芬蘭이有利하다는것을 暗示하엿다한다

朝鮮러비快勝
對門司鐵道戰에

日本遠征中의 朝鮮鐵道局軍 門司鐵道局軍과의戰은 二十九日午後三時十三分부터 小倉球場에서 鐵局軍의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十三對三으로 朝鮮軍이 勝捷하엿다

조반전

▲오월일일은 전세계로동자들이 일제히 일을쉬고 「메이데이」를 긔념하게된다 ▲그러나 조선만은 법례로 이것을 경찰당국에서는 금해왓다 ▲그런데 요지음 인천 영등포등지의 일부무식한 로동자들사이에는 금년오월일일부터는 「메이데이」를 실시하기로되엿다더라고 소문이 떠젓다 ▲그러지안허도 경찰서에서는 「메이데이」를 압두고 날뛰라 혹여나 무슨「삐라」라도 날려드려 오지안헛나하고 내사중에 난데업는 이런 소문을듯게되니 별안간에신경이 더날카로워질밧게 ▲그래서 이리 저리 돌어 알아보니 요지음에 오월일일부터 자동차「메ー터」제도를 실시한다고 붓영크로 밧인 광고지를 자동차 공문이에달고 다니는것을 보고 본사람들이 오전한 소문이엿습을알게 되엿다 ▲이에비로소 경관들도「메ー터」와「메이데이」의 두가지 외국말이혼동되엿슴에 쓴웃슴을 금치못하엿다나

말경매시투른交換手

【開城】 개성우편국(開城郵便局) 전화교환수들은 엇지나 말승메가 서툴던지 교환관계에 대하야 민간의 불평이 만타는데 일반은 수화인의 불평을 사게하야 비난이 만타고한다

어린이날前後五日間 兒童無料診斷

—漢城醫師會의斡旋으로— ◇市內五十六個病院에서

오월첫공일 『어린이날』을 압두고 해마다 이날을 더욱 의의잇게 지내고저 또는 장래의 건강조선(健康朝鮮)을 건설하고자 어린이날준비회의 교섭과 한성의사회(漢城醫師會)의 알선으로 어린이날전후인 오월일일부터 오월오일까지 부내에잇는 오십육세까지의 일반소년에게 일제히 무료건강진단(無料健康診斷)을 시행한다는데 그 각의원의 처소와 명칭은 아래와 가트며 이것을 철저히하기 위하야 어린이날준비회에선 『선전비라』까지 뿌린다하며 일반은 이 긔회에 만히 리용하야 보람잇길 바란다고한다

◇兒童에게 無料健康診斷할곳 (無順)

▲鍾路一丁目順天堂醫院 ▲寬勳町回生醫院 ▲鍾路二丁目東一醫院 ▲安國町安洞醫院 ▲樂園町漢陽醫院 ▲同朴昌薰醫院 ▲鍾路一丁目徐重醫院 ▲橫北町兼泉醫院 ▲茶屋町共愛醫院 ▲樂園町池盛周醫院 ▲觀水町紺漢成醫院 ▲安國町安國醫院 ▲寬勳町楊華醫院 ▲貫鐵町沈浩燮醫院 ▲樂園町沈相天耳鼻咽喉科 ▲鍾路四丁目天浩堂醫院 ▲孔德町金剛醫院 ▲瑞麟町鍾路醫院 ▲慶雲町洪濟醫院 ▲鍾路町昌德醫院 ▲西大門町二丁目青葉醫院 ▲青葉町二丁目齊永濟醫院 ▲堅志町吳元錫醫院 ▲通義町東萊醫院 ▲樂園町吳一承醫院 ▲公平町高永珣醫院 ▲薰木町德濟醫院 ▲鍾路二丁目洪錫厚診察所 ▲明治町二丁目東亞醫院 ▲淸進町淸進醫院 ▲西大門町二丁目東亞醫院 ▲授恩町進誠堂醫院 ▲仁寺町鄭起燮醫院 ▲茶屋町至誠醫院 ▲竹添町三丁目高麗醫院 ▲淸進町鄭在燁醫院 ▲鍾路五丁目三丁目鄭求忠醫院 ▲授恩町昌東醫院 ▲仁寺町崇實醫院 ▲同哲醫院 ▲積善町大東醫院 ▲橫北町石橋醫院 ▲西大門町二丁目濟華醫院 ▲天然町婦人醫院 ▲鍾路三丁目金弘範醫院 ▲寬勳町漢城醫院 ▲中央町金弘醫院 ▲同大衆醫院 ▲安國町新昌醫院 ▲壽昌町廣濟醫院 ▲仁寺町申寧濟醫院 ▲內資町彰東醫院 ▲寬勳町閔泳柔醫院 ▲授恩町全一堂醫院 ▲齊泰町全一醫院

無恥漢檢擧

지난삼십일 오후세시 부내신당정(新堂町) 상업 부근을 지나가는 그동리 삼백칠십삼번지 황모(黃某)의 장녀 순영(淳令)(二三)(假名)의 신변을 노리고 시내신당정 상지를 내인 피고 최승제(崔承財)(二七)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수일을 채우고 끌고들어가서 역상개년의 언도(言渡)를 바덧든바 이에 불복코 이십일일 경성복심법원(覆審法院)에 공소를 하엿다

參加選手四百餘 商工健兒總出陣

待望의商工協會春季大運動會 드듸여來三日로迫頭

정경성상공인들의 행락일! 경성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주최의 제십회 정경성상공련합대운동회는 이틀올일요 오전아홉시부터 신록이무르녹어가는 장충단(奬忠壇)공원운동장에서 화려한막을열게되엿다 아예출장할선수는 신청마감한까지에 남자(男子)가삼백구십이명 녀자(女子)가 사십일명이요 마라손에만도 칠십여명이 참전케되어 연인원수로 일천삼백여명에 달하는초긔록적성황을 이루고잇다 이날은 오전여듧시삼십분까지 선수, 역원일동은 광화문통(光化門通)광장에 집합하야 운동장으로향할터이다

商工協會運動會捐金 (承前)

東洋木二疋李德裕 白銅灰板雲興支店 面鏡二打 東亞理髮具會社 書籍五十卷 博文書館 書籍二十冊 永昌書館 中箱子三個 大針器三個永興德商店 卷紙五十冊便箋紙五十個南紙物舖 木坐鍾二個普信堂 다오루二打石鹼三打慶興商店 鏡臺一坐日興商店 面鏡一打鴻成商店 바겟스五個安慶昌金物店 匙箸十個德泉商店 家庭尺牘十冊匯韓書林 石鹼十打東昌

高麗磁器盜掘黨

開城署서一網打盡

【開城】 개풍군중서면려릉리(開豐郡中西面麗陵里)화북공번지 왕경무(王慶武)(四)는 그동리 김영일(金永日)(六)과 권한규(權漢奎) 조원진(曹元振)(二七)김영석(金永錫)(二〇)등 여섯명과 고려자기고분(古墳)발굴을 공모하야 가지고 작년십이월 이십일경에 부내남산정(南山町)사는 진상희(秦尙熙)소유인 동면연하리(煙霞里)산소에에 직경사조가량되는 화려한화병(花瓶)한개를 발굴하야다가 부내동본정(東本町)최병원(崔炳元)에게 매각한 사실이 개성서에 탐지체포되어 엄중한취조를 밧바던다는데 이러한범죄 사실이 전에도 수차 잇섯다는것을 자백하얏다는바 전기화병은 조각을묘하게생인 미술품으로써 여조시대의 뭇칫유물이라한다

仁川에再歸熱病

觀光期이자外來客輻輳로 當局은防疫에專心

【仁川】 관광이절을 목전하고 각종시설을 단행하고잇는 인천은 중국항로가 빈번할뿐아니라 월미도 『사구라』로인하야 매일평균수천려명단과 관광단으로 인산인해를 일우고 잇슴으로 특히 인천서 홍(洪)위생 주임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노력하고잇는데 지난 이십구일 본적이 강화군 부내면 옥림리(江華郡府內面玉林里) 최윤세(崔允世)(二五)가 재귀열병(再歸熱病)에 걸리여잇는것을 시외 덕생원(德生院)에 수용하얏다는데 그병은 장질부사나 『지부테리아』와 흡사하야 가장 위험할뿐아니라 봄이면 가장 만히 창궐하는 병이라하야 일반가정에서 내의를 청결히 하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 한다.

古山城봄빗차저 "젊은하이커—"勇躍!

京南支局主催南漢山城探勝盛況

【京南】 봄처녀를 지국주최의제일회 고적인고명소탐승 제일회의주 남한산성(南漢山城)탐승단일행은 예정대로이십구일 아츰일곱시성(成)지거갓(東大門)승합자동차(乘合自動車)를 향하엿는데 출발당시에는 가랑비가나렷슴에도 불고하고 젊은 『하이커』 삼십여명이 모혀들어 지못의리가득하다 짤막한 하로동안이나마 일행에게 줄거운긔계를 미잇는 하이킹을 맛보고저 뚝섬을지나 압헤서 다원을 두대로 나누기로하고 산성동문(山城東門)쪽으로 일대와 남문쪽으로 갈일대로 분열하야 어느쪽이 먼저 산성에 도달하나의 경주를 하엿는바 먼저도달하야 승전의 기를 올녓는데 정오부터는 날씨조차 개청하야 일행은 즐거운 일행을 축복하여 주엇다 일행은 서장대 (西將臺)에 올나 멀리 한양서울과 인천바다를 전망하고 숭렬전 유물(崇烈殿)과 청량당(淸凉堂)을 가서 거쳐 이청(二廳)의 이씨조선시대 행궁으로 쓰던곳에서 ... 장경사(長慶寺)까지 찾아 고 한바퀴 도라 점심을 먹고 다시 ... 다음 남한산성 연무관(演武館)에 도착하야 시간이 ... 지고 사진을 박혀다(사진은 (1)서 장대 압에서 촬영한것)

돗대불어진배! 어름판은九名의漁父

延坪바다에서 進退維谷中

【仁川】 돗대가부러저 생명을 위협하는 어선이 잇다 부천군(富川郡) 소래면(蘇萊面)포리(浦里) 리이봉(李伊奉)(三〇)의소유어선은 연평도(延坪島)어민구명이 이백사십원에 빌니여가지고 지난이십사일 조기잡이를 하다가 출어하는 동에 남동면(南洞面)염전(鹽田)구내에서 돗대(帆柱)가 가설중의 전선에 걸리여 맛참내 돗대는 세토막이 되엿스나 그들은 이번 조기잡이가 유일한생명선이라 동업는 어선을 가지고도 모험출어하라고 하얏스나 마침내 인천수상서의 제지를 당하야 출어도 못하게되야 오도가도 못하는 아홉명의 선원은 마침내 이를 움긴고 배안에 기진하야 쓰러저잇다하는 웃지못할 유모어의 희비극일막이 잇섯다한다

영업장려로주문마며 二百餘圓을詐欺

【永登浦】 봉저을 영등포정(永登浦)에 사는 화회만(朴會萬)(三〇)은 지난 어월이십일경 모친구의 소개로 시내영등포정 (永登浦)주란미상회천국(和泉)에 월급 십오원의 점원으로 들어가자 주인에게 착실하게 보이든바 일하기 몃칠이지 못하야 상점에 들어오는 돈을 실어가다 박하는 신용을 엇게되엇든 바원이 하고 나후제되는날부터 닷도록 주문을마치다가주 무미꾸등 이백원어치나 되하야 한의상가기 한분도 수금이되지 안홈으로 의심을품은 주인이 각주문주에게 탐문하야 물어본결과 모도가 거짓 말이엇슴이 판명되어 즉시 영등포서에 고발하야 동서에서 엄중히 취조한바 그자는 게획적으로 주문도업는것을 주문마터가지고 물건을 갓다가 팔어먹은 것이라한다

本社見學 수원서정(水原)지보통학교(水原三女子普通學校)오륙학년생도 팔십오명은 삼십일에 교원김영래(金泳來)씨인솔하에 본사를 견학하얏다

可驚할少年賊團

永登浦商店街根據

【永登浦】 수일전영등포 경찰서 (永登浦署)포형사(文刑事)가 영등포모중국인료리점 부근에 잠복하는중인 칠세가량의 소년네명이 모혀안저서 각각지갑들을꺼내가지고 무슨셈을을 하고잇는것을 발견하고 수상히녀여즉시 본서로 다리고가서 취조한바 그소년들은모다 인천부산수정(仁川府山手町)일백오십일번지 주소부정인 영흥포정(永登浦)리관중(金洞淳)(一七)외 네명으로 이십칠일 어려서 집이 리 이여명 시후(李時勳)(十七)외네명으로 지이래 취조를 밧다가 상점에서 번검되는 리 그 밧다가 삼천일 넘기고 다른 네명은 엄중설유 하야 방면하엿다고한다

東門署管內華鱎 七百餘名의多數

인천항(仁川港)을 대현관(大玄關)으로하고 중국인로동자(中國人勞働者)가 매년과가리 조선안으로 물밀듯이 드러오는사실은일측이 사회의 주의를 끄으는바로 이와가티 들어오는로동자의 무리는 직접으로 조선사람의 로동시장을 압박하야왓 [...]

당곡에만 식구가 업습으로 이틀식하고 대부분이 직업과 의식주를 조사한결과는 다음과갓다

料理店及飲食店	八九	三六二	一三
戶數	男	女	從業員數
勞動	一二六	一七〇	一
其他	三	一六八	三

急斜陝路車馬沙汰 交通地獄第一丁目

急施要하는三坂通고개道路擴張 默過못할便所"임풀레"

舊京城第九篇

길야정 『뻐스』 『택씨』 『우마차』 등 경성의 모든 문화교통기관을 함野町 바아리로 내모르는듯이 새벽이 밝기 면새벽! 밤이면밤! 하로왼 일에서 오고가 종일 혼잡을 이루어서 양장한 사람들은 행길얼굴이빠저 한수로 모롱이로비켜서서 한동안을 기다리며 가는 각가스로 행길을 넘어다니여지나는다가 이것이 삼판통(三坂通)으로 넘어오는고개 길울 이고개로말미아마 넘어짜서한 길야정(吉野町)주민들과 삼판통 주민들은 여간괴로운일을 밧지안코잇다 또이고개주민들만아니라 자동차운전수들과 마차꾼들에게 도 여간불평을 주는것이아니며 그는 경성부에서 애당초에왜이 리긴 발러른언덕길을 그러케 숙악마 이길을 통해 가트면 노앗는지 이길이 경남일대(京南一帶)의 문화지고개 주민들이 뒤를끄니지안코 불란을 하는것이다 (京電)과 통하는 도의 생기

나게 나드리들을 다니는길인데 차와 다리들이아니면 벽이되어 도어시 뒤곳부삶 다폭을 단두간폭밧게 아니맨드러 놋코는 경전뻐一스를 운전하집 안나 『투랙크』들을 굴리질안나 니 거러다니는 사람들에겐 무어이 라 말할수업시 불평을 주고잇 다 겨다가 또한도로를넓인 일은 하지못하여 비탈비탈길에다쿵 크리트는 왜또까러 노앗는지 이 런개발의 편자 가튼 일을하지말 고 길폭이나 늘여노앗스면 오죽 이나 조흘일인가 이랑편짝주민 들가운데는 상점동자들까지길넘 피거를 요망하고잇다 이고개를 넘어서면 바로 삼판통인데길량 엽흔 불과 삼사변안에 남조선구 들이 정렬하야 상점들을 허버 드락하게 쭉여노흔데 경성부에서 는 또한 거리 군데 군데 외 동까지 다려노아서 여러가지로 편의를 주고잇건만 뒤 골목조선

인조문은 해마독며려지면 캄캄절벽이된다 도어시 뒤곳부살림을 한다고 이러케천대를 주는지당 국자로서는 재고할여지가 충분 하다

이것뿐이나 집과집사이에 잇는 하수도가 또한 온전하게흘러가 질못하야 항상검정꺼리인데 겨 울에는 어러서빙판을 이루고 여 름에는 썩어서냄새를 피우니이 것도 한번생각할일!

또한가지는 집집마다 『쓰레기 통』『온맨드러노라고 극성을부려 서 억지로 괴꽉한개나마 맨드 러노코 쓰레기를 담어노니 제 때치가지를안는다 이것도겨울은 다시판계찬타마는 여름에는 파리 들의운동장으로서화이라 그전염병에 바로나타날것이 쓰레기통을 자조치 라도 먼저 쓰러서는 주기통을 자조치 도록 헤스면 예방주사의 몃배 효력이 잇슬것갓다 쓰레기도그

고개에는 이름도란 고개에는 또한 조흐엿다

려차만 집집에 변소의 『임풀레』가는 위생비는 무엇에쓰는비용 숨』(?)은 더욱 기막힐 일이 인지 못는것보담도 현명한경성 다 그러니 그헐울 조케 바터 부담하자는 맹성할것이다

◇사진은 문제의 삼판통고개

그러케갑싼生命?

벗곳위해먹은睡眠劑 이내깨여나지안는看護婦

이십구일 오후네시경에 시내 서린정(瑞麟町)일백사십일번지에 묵고잇든 회사원 주추문(朱秋文)(二七)=假名=의 어린첩 최은숙(崔銀淑)(一七)=假名=이라는녀자가 다량의 『칼모친』을 먹고 혼수상태에 빠저잇는것을 일보고 돌아온 그의 남편이 발견하고 곳 시나 종로(鍾路)일정목 광중의원(廣重醫院)에 입원식혀 응급치료를 밧고잇는중인데 아직껏 깨여나지 못하고 잇다. 이제 그까닭을 알어보건대 전긔 녀자는 인천(仁川)에서 간호부노릇을 하는중으로 천긔 남자와 사랑을 속삭이게되여 오는중 창경원야앵(昌慶苑夜櫻)을 보며 하로밤을 즐기고저 그날 새벽한 시차로 서울에와서 밤새도록 애인과 이야기하느라고 잠한숨자지 못하고 그날밤 도바라던 벗꼿구경을하기위하야 낫잠을자둘라고하나 그전부터 불면증이잇는 녀자라 잠이오지안홈으로 벗꼿 구경하고십흔나머지에 『칼모친』을 엄청나게만히 먹은까닭이라 고하는데 창경원야앵벗꼿에 죽 가잇는지 또그들속에술은 그무 여이잇든지는 알바이업다한다

南大門市場運動會 寄附者芳名

元嵐株一百圓 漢城銀行南大門支店七十圓 辻本商店五十圓 東一銀行南大門支店五十圓 京城電氣株式會社五十圓 內田近雄二十圓 朝鮮商業銀行南大門出張所三十圓 松京運送店三十圓 吳潤學二十圓 豊國製粉株式會社二十圓 權永義二十圓 李文永二圓 朴永根二十圓 朴漢杓十圓 相信商店十圓 李釗同五圓 崔君三五圓 金東洙五圓 李得鳳五圓 李熙永四圓 徐相旭三圓 朴英俊二圓 咸尙默三圓 金順石一圓 合計五百三十五圓 累計一千五百二十三圓五十錢

愛子를차저서! 三父女徒步千里

【仁川】 아들차저천리길을방황하는삼부녀!=전북(全北)장수군(長水郡)계북면(溪北面)월현리(月峴里) 배인서(裵仁西)(五)와그의 김씨(金氏)(三)와며누리김씨(金氏)(二)손자분옷(分順)(三)삼부녀는 작년수해로 집과 가산을 일코 생도가 마련할으로 그아들구봉(九奉)(三)이 팔헤도 근방으로 직업을차저 나왓스나 그소식이 업슴으로 도여시 삼부녀는 천리길을 걸식하면서 도보로 서산(瑞山)까지오후 그곳에서 목선주의 호의로 인천까지는 배를타고왓스나 도것지아는데 아니될터빈입으로 인천긔선회사에서 오는이십팔일마나는기선으로 웅진(甕津)까지는래여주기로 하엿스나 아들의주소조차확실히 몰으고 돌어서 가게되 히가는 삼부녀참상이 눈물겨운 사실이엿다한다

藥先送服藥後代金支拂

(臺灣支局一切)

代金全額後拂

不老長壽、强精回春

●百補丸은 東西洋補藥中最極上 第一完全 第一조흔 絕對特上効力신기합니다

氣力이 活潑하여지고 早○가 完全히낫고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이어서지고 精氣不足이나 腎水不足이나하는 생각은 꿈中에도 업서지게되며 補全身百補하야 生理的으로 精神的으로 完全히 더욱 年이되고 不老長壽케되니 이에서 더조흔補藥이 어데잇습니가 更少하자 當分間 藥先送하고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하오니 이藥의 効力을 疑心할餘地가 秋毫만치도 업스실것입니다 只今곳注文하시요

人生에急大問題

●나무가 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 주지아니하면 그나무가 엇더케되겟습니까

●사람이 性慾이숡고 氣力이업고 勇氣가 나지아니하는때에 조흔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가티 悲慘하게 됩니다

百補丸의 藥効는左와如히 참 굉장합니다

一、百補丸을 服用하면 ○先手足과 下焦가 蓋가러워집니다

二、精力이 精水가리 每日每日느러서 寒暑不知中 마히보게되며 深夜徹夜로록 不眠勞力하여도 翌朝에 無難히 早起하게됩니다 此是 百補之然由効力偉大之處

三、飮食을 自然히 맛히 잡수시게되며 체중가增하는것은 어느때업서것든지 알지도못하게업서집니다

四、一週日만服用하면 ○○가른性○이不如中○할되며 遠服하면 用之不渴精源이 如泉하며 玉身仙風 皮膚에 주름살이펴지며 不老更少年이되며 ○○과○○두가지 人生最大의欲望을 必히 滿足하게되며 永久히 幸福한身體의 所有者가 될것입니다

五、遠山松葉散을 能히세일곳 百補丸을 服用하지며 遠山의松葉散을 能히 세일곳 生氣分이 生합니다 이것은 精氣、氣力 ○○○○○○ 되기까닭이며 몸이 輕하야지는것은 體重이減하여 진것이아니요 筋骨이튼튼하여지는까닭입니다

六、體重이增加됨 顏色紅潤 服藥後 體重을 다라보시요

七、몸의 健康은 家庭의興退를回復하고 ○○의 健康은 不和한家庭을和睦케함 몸의健康 精神의健康 ○○○의健康은 不和한家庭을 和睦케하며 家勢나 一하

여가는데運도 必히挽回할수가잇습니다 身體가虛弱하면 興旺한家運도 多福한家勢에도 이기여 敗家케됩니다 切實히 必要한것은 健康 二字뿐입니다

八、百補丸은 完全無缺한補劑이며 補藥中에는 或一部臟器만補하는藥도 許多하야 或人効 或人無效하지만은百補丸은 人體百部를全部補하는 補身하는靈藥만 二十餘種珍貴한 原料가配合하야잇는 神人道師 葛玄眞人의 救世的秘方藥임니다

九、胃腸가大增進하야 ○○의困難가 不可思議之實로增加됨

十、血色이 조와지며 얼골에주름살이 펴지며 玉身仙風이됩니다

十一、힘이생깁니다 神經衰弱가는것은 업서집니다

十二、사람이착착하고 점지안어 집니다

十三、長久服用하면久淋도消滅됨 ○○後疲勞不變은 참신기 기묘하게其効

十四、淋疾根治後는回陽키爲하야 必히百補丸을服用하여야합니다

●百補丸은 絕對的 一時的 効果를내는藥이 아니요 道師神人葛玄眞人의長久効力나는秘方藥입니다 葛玄眞人은 達學者들은 다잘아시는道師입니다 代金特價一劑拾圓·重用二十圓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腎·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平生兼病健康長壽劑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하니 藥効의最大確實最極上은不問可知

第一、第一、참第一、정말第一조흔 補藥인故로藥先送하고代金後拂約束으로 販賣하고잇습니다

그런즉이藥의效力이얼마나 確實한지는諸氏도不問可知일것이올시다

●性慾이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 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한사람 ●恒常氣力이업고 ●活氣가적은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症狀이오니 一日速히 第一完全하고第一 조흔 補藥 百補丸을 服用하시와 更少年이되시요

代金後拂 規定及趣旨

百補丸의 大特効를天下사람에게 急速히알게하기爲하야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합니다 만흔 試服後代金을 잘내실줄밋고 藥을先送합니다 然而 判任官 公立學校長 全朝鮮金融組合理事 京城市內町總代 全朝鮮百石以上秋收하는 地主에게 누구에게던지 다後拂條件으로 送藥하오니 만일 服用하시고 後拂注文에應하고 그他 諸氏에게는 失禮이오나 普通注文으로 하옵소서 試服後代金을 反藥하시거나 返藥하시고 萬一이라도 試服이 貴意에不合하면 返藥하시고 返金請求를하시게 規定이되여잇사오니 先金이나 代金引換이나 服藥家의 利害得失은 同一합니다

後拂注文法

注文時에 먼저「後拂注文」이라쓰고 試服後 支拂할터이니 百補丸特製一劑보내시요 藥代金十圓은 送金하여 주시요 郵票로나 振替나 爲替로 先送하여 주시요 注文法은 貴氏名에 官吏면 官名을 쓰시고 富者면 地主라고 肩書하여주시고 百石以上秋收하는地主면 地稅證明書를 同封하여 주시요 注文書에는 必히 捺印하여주시요

普通注文法

平和堂振替五番에 送金하시거나 爲替로나 十圓을 보내주시던지 藥書로 百補丸特製一劑 代金引換付送하오니하시오

普通注文人께特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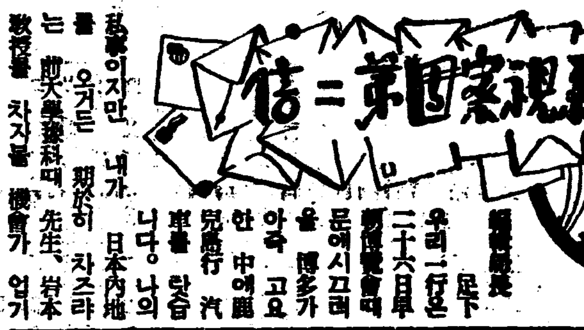
普通注文人께는 送料도 本社負擔하고 苦心發見한專賣樞手續中인 藥品만 九痕觀音에 秘中秘로 秘藏하든 秘方藥紹介 愛用藥 常備用小一箱式을 無料로添呈합니다 三劑以上 共同注文 百補丸一劑無料添付 (期限當分間)

朝鮮第一 優用販賣高

藥效가 廣告와 달를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요

京城堅志町(五·七)(前中央日報社跡)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振替京城五番·電光六三番

▼百補丸은草根木皮에觀察後效力 藥書百補丸을注文하시요▲



噴火山阿蘇登攀

—流麗한說明에旅勞를忘却—

別府에서發送 咸尙勳

足下 우리一行은 二十六日早朝 博覽會때문에 시끄러운 博多가 아죽 고요한 中에 鹿兒島行 汽車를 탔습니다。나의 ○○이지만 내가 日本內地를 오거든 期於히 차즈라는 前大學農科때 先生、岩本敎授를 차자볼 機會가 얻기 때문에 博多에서 그뜻을 電報하엿더니 佐賀에서 일부러 鳥栖까지 나와 나를 車中에까지 訪問하고 조혼 膳物을 주고 阿部川까지 餞送하야준것은 나뿐아니라 우리一行의 길히 感謝하는바입니다。우리朝鮮서야 學校에 다닐때에도 先生에게 人事안하고 다라나는 學生이잇고 卒業後는 만남보다도 疎闊하게지내는 師弟가업지안는데 十餘年前 가라친恩師가 일부러 百里길을 나와 마자주고 百里길을 餞送해주는것을 볼때 누가 日本內地人의 師弟間의 道德을 敬服치 아니하리까。

◇

車東가 南으로 南으로 熊本까지 가는동안은 意外의 眼界가 더욱 넓고 맑아저 우리의 心景을 깃겁게하얏습니다。平野全面에 벌어진 장다리(菜花)와 一尺이나 조흔 大麥 洞里洞里마다 욱어진 대숩을 그새에 이따끔 피는 [illegible] 南國情調를 무던히 자아내더이다。岩本敎授의 말에 依하면 北九州는 筑豊炭田 때문에 小倉、八幡、博多、久留米等 工業이 發達하고 南九州는 筑後平野、熊本平野때문에 農産이 豊富하야 生活에 餘裕가 잇고 東北地方가티 自力更生運動은 必要치안타 합니다。그런데 朝鮮에는 九州서 오는 사람이 가장 만흔것은 무슨 때문일가요?

◇

우리는 熊本서 汽車를 갈아타고 大分으로 가는 途中 坊中에서 나려 阿蘇山을 登攀하기로 되엿습니다。熊本서 坊中까지는 [illegible] 汽車는 阿蘇의 外輪山을 넘어 盆地에 드러오는것이 [illegible] 盆地의 中央에 잇는것이 坊中驛이오、이곳에서 阿蘇山의 山頂까지 三十餘里의 山道인데 登山自動車가 잇고 이것을 往復하는 登山뻐스가 잇서서 登山에는 [illegible] 이 업습니다。뻐스는 一九分의 一의 勾配로 된 [illegible] 올라가는데 車가 올라갈수록 [illegible] 外輪山은 [illegible] 나오며 멀리 三百里로 [illegible] 眼界가 [illegible] 展開됩니다 [illegible] 이 荒凉한 大火山을 오르기만 하얏스면 얼마나 乾燥無味하얏겟습니까。뻐스會社는 이點을 생각함인지 車中에 十六、七歲의 고흔 少女 車掌을 두고 종달새가튼 아름다운 목소리로 左右山川을 點指하며 一一히 說明을 합니다。그 口調가 예날 淨瑠璃 무슨 日本古典劇을 읽는것가타서 旅行에 疲困한 손들을 [illegible] 줍니다。그 少女의 說明의 一例를 들면「阿蘇山の目的地、阿蘇の五岳の一なる、その中岳の噴火口の周圍約一里、中口は火口又七つ、外輪山と火口原共にそれぞれ名は[illegible]つて、その名火山の大阿蘇の複成火山と言ふことがいと明かに知られます。」

◇

山上驛에서 噴火口까지는 三町남짓하게 안됩니다。모다 徒步로 荒凉한 熔岩을 밟으며 올라갓습니다。그火口는 네개가 잇는데 第三、四는休火山이오 第一、第二는 只今 宏壯한 形勢로 黑煙을 吐하고 잇는데 그硫黃냄새가 코를 찔러오며 山上에 머물러잇기가 困難하거늘 돈벌기에 눈이어두운 이들은 硫黃을 캐노라고 精神이 업습니다。여기도 非常時의 日本을 表現되엿소。下山하야 別府에 가니 때는 이미九時半 (四月二十七日朝)

寧邊特産絹織物

年産六萬餘疋에到達

內外各地로着着進出

【寧邊】 地下金鑛으로 有名한 [illegible] 妙香山을 가지고잇서 名勝寧邊의 [illegible] 을맛고잇는 平北寧邊郡은 産業으로 進出하야 産業寧邊으로서 또한 全朝鮮에 著名케되엿다 寧邊은 距今百廿餘年前부터 機業이 始作되여 오랜歷史를 가지고잇섯스나 그동안 衰微不振狀態에 잇든것을 昭和二年에 寧邊産業組合이 創設되면서부터 郡當局과 協力하야 此를 指導奬勵한結果 當時에 絹年産量二三萬疋內外이든것이 只今에는 倍以上增加되야 有名한 寧邊紬三萬疋을 爲始하야 紬素、明紗、生紗、絹紬、亢羅、七色紬等合치 六萬餘疋에 達하는데 其金額이 四十萬圓을 超過하고 잇다한다 그리고 또 從來에 一치 못하든 長幅이 統一되고 色澤과 品質과 染色方法等이 漸次 改良되여 柏來品을 凌駕할만한 商品다운 商品으로서 名聲이 널니 宣傳되고잇다 販路는 朝鮮內各地에는 勿論이고 日本內地와 滿洲、中國其他로 每年輸移出量이 增加되고잇는바 압흐로도 더욱發達되리라고한다

無盡業令改正과

平南의合同問題

【平壤】 今番의 無盡業令改正은 二十一日의 [illegible] 施行期日은 九月中旬에이라하며 [illegible] 이것은 今後 全國一社도 可能하다고 [illegible] 할수잇서 無盡統制의 [illegible] 가되다고볼수잇다 또今番의 改正으로는 [illegible] 의 [illegible] 이업스면 合倂할수업는 現行法規의 一部도 [illegible] 改正될 [illegible] 이므로 [illegible] 의 統制는 [illegible] 總督府와 方針가티 [illegible] 도보된다 그러므로 이方針대로 進行한다면 그前提로서 總督府는 爲先 一道一社主義를 實現하겟고 따라서 平壤無盡과 [illegible] 南浦無盡의 合倂問題가 急速히 實現 될것도 未然히 興味잇게 보인다

産◇業◇短◇信

▲南市 平北南市金融組合에서는 二十四日 同組合에서 總代會를 開催하엿섯다
▲德川 平南德川金融組合에서는 十九日午後一時부터 德川公普校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陜川 慶南陜川産業組合에서는 二十四日正午부터 同組合構內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靑陽 靑陽産業組合에서는 二十五日午後一時부터 靑陽公普校에서 定期總會를開催하엿섯다
▲淸亭 平北淸亭金融組合에서는 二十五日正午부터 同組合事務室에서 總代會를 開催하엿섯다
▲榮州 慶北榮州商工會에서는 二十三日午後一時부터 龜城公園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會寧 長谷川和三郎氏의 經營인 石灰工場位置는 會寧郡甫山面에서 南으로 二千米突地點에 [illegible] 新作耕地面積九七四町一五、〇九段 生産高五六六、二五三、七百瓩 [illegible] 두게되며 工事費는 二萬圓으로 許可申請中이며 [illegible] 竣了되고 八、九月頃에는 [illegible] 販賣를 市場에 [illegible] 되리라고한다
▲江華 江華人蔘組合에서는 四月二十五日 江華[illegible]內에서 總會를 開催하엿섯다
▲鴻山 扶餘産業組合에서는 四月二十三日 午前十時부터 鴻山公立普校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엿섯다

産業

慶南一帶鰮漁

低溫으로殆無

漁業에打擊難免形勢

今年의 酷寒으로 海中氣溫은 顯著히 低溫을 示하야 어것이 漁業에 就中 鰮漁業에 及하는影響이 憂慮되고잇는바 果然南朝鮮 地方이 新漁期에入하얏슴에도 不拘하고 鰮來遊는 거이업서 그推移는 憂慮되고잇다 即慶南의春漁期는 例年四月부터 始作되는데 今年은四月末에入하야도 거이 不漁로 危懼되고잇는바 問題는 今後의氣候推移와 鰮等의來遊關係에잇는데 前年의 超記錄的增産後임으로 今年의 鰮漁業은 並沿帶漁族의 漁獲業은 深刻한 打擊을難免하리라고보인다

全南"술립퍼"

大量의注文

大阪商人과契約締結

【光州】 全南特産의 名産인 竹製品을 米國에서 注文이 잇섯다함은 이미本報에 보도하얏거니와 이번에는 全南農村副業으로 하고잇는 술립퍼를 大阪에 잇는 田中이란 商人이 全南道當局을 通하야 五萬餘足을注文 하얏슴으로(술립퍼名産인 谷城畫光兩郡에 注文을식혀 契約까지 完了되엿다는바 그代金이 二千餘圓이라는데 이것도또한 우리 産業界에 快消息이라고한다

水原米穀協會館建築

【水原】 水原米穀協會에서는 數年前부터 會館을 建築코자하얏스나 別로 그建物을 利用할곳이 업서 建築치못하고오든中 번水原穀物檢査出張所와 相關한 結果 階下를前記檢査所 使用하기로하고 建築費二萬五千圓의 工費로 二層洋屋을 水原驛前新道路接續에 建築하기로 確定하얏다하는데 坪數는 五十坪으로

元山統水會組織

【元山】 慶南統營水産學校를 卒業하고 元山에와서 水産試驗場 漁業組合等 水産關係團體및學校에 在職하는 젊은水産硏究家들이 數日前 某處에 모여서 元山統水會라는 硏究와親睦을 目的하는 會를 組織하얏다는데 이會의 適하야 水産元山에 寄與하는바 크리라고 一般은 期待中이라한다

寧越葉煙草生産高

【寧越】 江原道寧越郡은 道內에서 有數한 山岳地帶로서 南漢江本支流가 縱橫으로 흘러 交通의 不便은 勿論이오 兩岸이 急하야 灌漑의 便이 僅少하나 土地는 粘土質이오 氣候는 四圍의 山岳과 河流의 調節을어더 寒暑의 差가甚치안흔關係로 農産物로서는 煙草栽培가 가장適當하다는데 이미 煙草耕作人組合까지 組織되여 大大的으로煙草栽培를 奬勵한다는바 前年度 生産高는다음과갓다고한다

京安畜牛市場

繁盛의一路

每市五百餘頭가出廻

【廣州】 近來農村의 畜牛熱이 高潮되고 農牛의 需用이 激增함에따라 各地畜牛市場은 前에업든 大繁盛을 이루고잇는바 特히 廣州邑內의 京安畜牛市場은 每月三、八、十三、十八、廿三、廿八의 六回式 開市되는데 他市場의 追從을 不許할만큼 놀나운 成績을 보이고잇다 一回市場에 産出되는 畜牛가 五百餘頭에 達하고 賣買되는 成績도조와 普通百餘頭式 賣買되며 그代價만이 一萬二三千圓으로서 이畜牛市場이 一般農家에주는 經濟的價値는 巨大한바잇다。産出牛를 보건대 멀리 嶺南地方의 大邱、榮州等地의 優良種이 産出되며 近畿各郡의 産牛는 大部分 여기서 集散된다 特히 이京安市場은 京城東大門外家畜市場의 關門的位置에잇게되여 南朝鮮地方에서 오는 畜牛는 그全部가 이京安市場을 거처서 가게됨으로 加一層 繁盛을餘하고 將來發展의 可望이 크다한다

(寫眞은 同市場의一部)

巾着網漁業權

新規許可는幾何

咸北道와總督府의意見相違

【淸津】 말만드러도 豊盛豊盛한 鰮의 所産地인 咸鏡北道는 今年에도 벌서 豊漁의 兆徵이 잇다하야 매우 好景氣를 豫想하고잇다 權利만 二萬圓한다는 巾着網漁業의 許可願은 相當히 만히 道當局에 提出되고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優先權을 가진 昨年度許可者五十六名만 許可되는채로 아즉것新規出願에 對하야는 何等의 消息이 업서서 新規出願者는 今日이나 明日이나하고 마음졸이고 기다려 許可되기를 苦待하고잇다 新規만의 出願이 道當局에 一百四十件이나 提出되얏는데그中 二萬圓의 幸運의 權利를가질 者면이나 될는지 果然疑問이다 風聞에 依하즉 總督府에서는 六十件을 超過치 아니할 모양이며 道當局에서는 七十件까지는 조타는主張이잇슴으로 總督府의 主張대로 된다면 新規는 겨우四名밧게되지아니하는데 그러치만 漁村振興의 前提로 漁業組合監視下에 從業하는 匿名組合의 出願에 優先權이 內規되데 依하야 認可될 모양인데 이種類의 出願이 四五件될으로 純全히 個人으로서 出願한것은 全然 希望이 업게될터인바 果然 總督府의 案이 通過될는지 道의 現地案이 認定될는지 자못 疑問임으로 新規出願者들은 매우 초조하는 중에잇다한다

咸南道沿岸의

水産業者一萬戶

船舶數는三千四百隻

【元山】 元山商工會議所의 最近集計에 依하야 咸南沿岸에서水産業에 從事하는 戶口및 船舶數를보면 漁撈及其他에 從事하는 戶數는 總計 一萬七十七戶인데 其中 漁撈戶數는 九千一百二十二戶 養殖戶數는 四十一戶 製造戶數는 九百十三戶이다 그리고 漁業用船舶은 三千四百五十二隻인데 其中 漁撈用朝鮮型及이에準한 帆船이 三千二百四十一隻 發動機船이 七十五隻 運搬用朝鮮型及이에準한 帆船이 七十七隻이고 發動機船이 五十九隻이된다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야보면 戶數에잇서서는 一割七分의 減少인데 反하야 船舶은 四分五厘의 增加를 示하얏다고한다

共同作業場

社倉에設置

【平壤】 平安南道 産業課에서는 産業組合의 事業을 助長하고生産費의 低減을 圖코저 總督府의 補助를어더 共同作業場의普及을 圖하기로 되엿는데 現在道內에는 九個處의 設置를 보앗고 今年에는 寧遠産業組合에 또一個處를 設置하기로하고 位置를 社倉에 定하여 總經費四千圓을 計上햇다 이經費는 國庫補助二千圓 地方費補助 一千五百圓이 支給되엿고 主要한事業으로는 藥草加工과 麻布機織의 共同作業場에 使用될터이다 또한今年度分은 今年六月頃까지에 總督府에 補助申請을하여야되는터이어서 各府郡에 向하여 申請하도록 示達한바잇섯다한다

平安南道內에

緬羊牧場設定

緬羊計畫에 基한 今年度緬羊輸入은 第一期으로 一千五百頭는 六月、雄其에 總羊키로 決定되고 農林局에 第二期은 豫定許畫의 一千頭에 다시 一百頭를 增加하야 一千一百頭를 購入하야 八月 入荷될豫定인데 이는 右南滿洲로 決定되엿다 이는 緬羊計畫의 進展에 伴하야 北朝鮮만아니라 西朝鮮에도 東洋에서 一大牧場을 建設할 [illegible] 計畫案이 進行되어 同牧場에 收容하기 爲하야서 同牧場에 敷地를 選定하기로되엿다 町步의 敷地 日下 東拓 鮮鐵 農林局、平南、黃海各道廳間에 愼重協議하고잇는바 敷地關係上 設立地는 未定이나 大體平安南道內에서 一千町步의 敷地를選定하기로되엿다

特別議會提出될

經濟關係法案

【四】

重要産業統制

改正法案骨子

重要産業統制法改正法案의 骨子는 압서도 述한바와가티 一、트러스트의 取締를 새로 加하는同時에 카르텔에 對하야서도 公益的立場에서 取締를 强化하랴는 一、統制의 强化의 二點에잇다 具體的으로 改正點을 보기로하자

(가) 主務大臣에 同組合員의 統制協定의 統制를 加盟者의 生産高 又는 販賣高의 二分의一以上이되것에 限하는 것이다 統制를 强化한것을 (다) 統制服從命令을 發하라는 것이다 (나) 統制服從命令의 發動事件에 生産高 又는 販賣高가 加盟者의 生産高 又는 販賣高의 三分의二以上을 占할 必要가잇는條件으로 付加할것 이도 前項同樣 現行法이 統制協定의 加盟者二分의二以上으로 個數에 依하고잇든것을 다시 實質的要件을 付加하야 前項同樣의 意義를 가지게하얏다 그러나 이보다도 統制를 强化한것은 界를 支配하는 大資本의 統制力을 一面에잇서서 法律的으로 强化하는同時에 他面이에對한 公益的取締를 强化하는 素地도 지엇다

(다) 統制服從命令의 發動申에잇다 即 現行法에잇서서는 統制命令의 發動에 際하야서는 統制協定의 加盟者는 勿論 그 協定加盟치안흔 아웃트싸이더、에對하야서도 協定의 全部 又는 一部에 服從할것을 命할수잇는데 이것으로도 가튼 資本으로 새로 會社를 만들어 巧妙히 이統制命令을 免하는 脫法行爲가 잇슬수잇서 現在 세멘트에잇서 그러하얏다 따라서 이를 防止하야 統制의 完璧을期한것이 이改正點이다 即 이미 命令을 發한 産業에 對하야서 는 新設增設은 모다 許可를 要케하얏다 以上은 統制强化의 點에서 出發한 改正點인데 다시 트러스트等의 獨占資本의 取締 等 消費者擁護的 觀點에서

(라) 共同販賣에 關한 事業을 營爲하는者를 取締할것 으로 되엇다 共販會社가 카르텔인가 트러스트形態인가의 議論은 이때까지도 잇서 現行法은 이에充分한 取締를 밋치지 못하얏섯다 이번이를

(마) 트러스트의 取締와함께 法文中에 規定하얏다 다시

(바) 所謂公益規定을 一層具體的으로 整備할것으로 되어잇다 所謂公益規定이라는것은 現行法에 統制協定이 公益에 反하고 又는 産業의 公正한 利益을 害한다고 認한때는 그變更 又 取消를 命할수잇게되어잇다 그러나 무엇이「公益에反하고」 又는「産業의 公正한 利益을 害」하는가하는 根據는 全然 規定되지안햇다 이結果 이規定의 發動이 대단히 困難하얏다 그럼으로 이境遇를 具體的으로 例하면 協定(카르텔의境遇) 又는 行爲(트러스트의境遇)가

一、價格의 自然的低下를 妨害하는境遇

一、需給의 圓滑을 妨害하는境遇

一、關係産業의 自由를 制限하는境遇

等等을 明示하고 이러한때에 그 (公益規定의 發動을 促進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本改正案은 産業界의 變化에 備하야 現行法대로 施行期間을 五個年間에 限하야 延長하얏다 最後에

(사) 將來本法이 外地에도施行될것을 考慮하야 用語를整備하얏다

이는 例하면 從來는 法文中에「主務大臣」이라하얏든것을「○○政府」로 곳치는것等이다 그러나이統制法이 外地即 朝鮮、臺灣에도 施行된다는것은 米穀問題에잇서 內外地의 對立이잇는것과가티 자못 困難한 問題이어 아즉未解決대로 今後로 미루고 잇다

臺灣拓殖株式會社法案

臺灣의 經濟開發을 目的하는臺灣拓殖株式會社의 設立은 岡田內閣의 決定한 國策으로 그設立에잇서서는 同會社法을 制定하기로되엿바 現內閣이 組閣된後 馬場藏相은 重要法案이 輻輳하야 이으로 短期間인 特別議會는 短期間인 時에 從來 日本內地人의 移民事業及 從來 不動産金融이 不可能하든것을 이法에依하야 그難行하자는것이다 方途는 업슬가하고생각하고잇든 바 日本內地의 商法에 依하야 臺灣에 公布되어잇슴으로 그商法의 例外規定을 包含한 同法案을 議會에 提出하는것이 妥當하다는 法制局方面의 意見이잇서 拓務省에서 이번特別議會에 提出하기로 되엇다 그內容에 對하야는 目下 大藏、拓務兩省間에서 折衝中이므로 法案內容의 最後決定은 알수업스나 大體의 要綱은 左와如하다

一、臺灣拓殖株式會社의 設立目的은 臺灣島內의 拓殖事業、及 金融 其他 今後設立하기로 된 南洋拓殖株式會社와 共히 將來는 必要에 應하야 南洋投資도 實行할수잇는것이다 事業의 內容은 本島의 官租地의 管理 未墾地의 干拓開墾 分讓等인데 産米低率로 하려는 目的하는 産物은 米 麥麻 棉花(이에 關하야 絹綿事業도 經營함) 茶、砂糖等에 主力하는同政策上 米穀을 除外하고 苧麻

一、社債發行限度는 拂込資本金 總額의 三倍가량으로 著著을 볼모양이며 役員은 社長 副社長各一名 理事三人以上 監事二名以上

그런데 臺灣의 未墾地는 從來總督府에 對하야 拂下運動이 잇섯는데 今後는 會社를 通하야 分讓拂下를 實施함으로 其間의 利權運分은 解消되고 土地管理의 合理化가 實行될것이라한다 그것은 臺灣拓殖上 조흔일일는지 모르나 元來臺灣의 民有地는 百十七萬町步에 對하야 官有地는 二百五十二萬町步에 達하는바 今回 官有地中에서 會社에 出資하는 未墾地의 範圍는 아직 決定되지안햇스나 前記官有地의 一部分인것만은 事實이다 다만 問題는 本島의 그風俗에 依하야 國有未墾地를 이미 無斷히 開墾하고 잇는것이 만흘으로그 土地의 處分에잇서서 會社가 成功하겟느냐 못하겟느냐하는 자못 注目되는바이다

一、同會社의 組織은 同會社는 昭和十年十月 臺北市에서 開催된 熱帶産業調査會의 答申에 依하는바 資本金은 大體 三千萬圓으로 하고 其中 一千五百萬圓은 臺灣總督府가 官租地를 現物出資하야 全額을 拂込하고 또 一千五百萬圓은 民間의 現金出資하는데 第一回는 그四分之一을 拂込하다 配當은 將來民間出資에 對하야는 六分가량을 實現할수잇게하는데 政府出資의 配當은 民間보다 初期는

特産市勢

【本報支局特信】

▲安東 (二十七日)

◇安東布

品等	單位	價格
上品	一疋(二十五碼)	自 [illegible] 至 [illegible]
中品	同	自 [illegible] 至 [illegible]
下品	同	自 [illegible] 至 [illegible]

◇繡座布團地

品等	單位	價格
	一反(十二碼五分)	自 [illegible] 至 [illegible]

▲黃州 (二十七日)

◇苹果

品種	等級	單位	價格
國光	一等	四貫入箱	[illegible]
同	二等	同	[illegible]
同	三等	同	[illegible]
倭錦	一等	四貫入箱	[illegible]
同	二等	同	[illegible]
同	三等	同	[illegible]

日用商品市況

京城 (四月二十八日)

◇藥種類

品名	單位	價格
곰구마	十貫	[illegible]
도라지	一貫	[illegible]
白蔘	十貫	[illegible]
人蔘	一貫	[illegible]
蘿蔔根	同	[illegible]
生薑大	同	[illegible]
同小	同	[illegible]
수박	同	[illegible]
胡瓜	百個	[illegible]
茄子	同	[illegible]
일변갑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南瓜	本箱	[illegible]
玉葱	十貫	[illegible]
靑葱	一貫	[illegible]
미나리	一把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松茸	一貫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苹果 國光	四貫	[illegible]
同 紅玉	同	[illegible]
同 倭錦	同	[illegible]
梨 早生赤	晉貫	[illegible]
同 今村秋	晉貫	[illegible]
同 晩三吉	同	[illegible]
夏蜜柑	同	[illegible]
바나나	一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百斤	[illegible]
고추	百斤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百斤	[illegible]
乾蓮根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鷄飼乾粕	十貫	[illegible]
成鷄用練餌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幼虫用粉	二ポンド	[illegible]
麩	百斤	[illegible]
玉蜀黍碎	百斤	[illegible]
同 中割	同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封度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橫毛	同	[illegible]
펠트	同	[illegible]

◇養鷄用鐵網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 二寸目	百斤	[illegible]
同 一寸半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	同	[illegible]
同 一寸半	同	[illegible]
同 一寸目	同	[illegible]
同 五分目	同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잉어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뱀장아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자라	同	[illegible]
蜆貝	一升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鷄卵	百個	[illegible]
同	一貫	[illegible]
生鷄	一貫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鶉卵	同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藺草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椎茸	同	[illegible]
胡麻油	一罐	[illegible]

【朝鮮副業協會調査】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八六四	金	忠南公州郡木洞面	三月二十七日	保寧郡周浦面 代表者 公州郡正安面 金宮南忠權熙
一二八六五	砂金	慶南陜川郡鳳山面 居昌郡南下面南上面	同二十八日	咸安郡伽倻面 趙巫石
一二八六六	金銀鑛	京畿開豊郡西面	同	開豊郡西面 玄在郁
一二八六七	同	平北熙川郡長洞面	同	京城府業園洞 白祺鎭
一二八六八	同	京畿利川郡麻長面	同	京城府樓上洞 代表者 龍仁郡遠三面 閔泳台 金周秀
一二八六九	金銀鑛	慶南晉州郡美川面	同三十日	京城府桂洞 李曉盛
一二八七〇	金銀鑛	咸南新興郡下元川面	同	新興郡東古川面 朱寅八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〇四七二	全北淳昌郡金果面 全南潭陽郡金城面	三月二十七日	長城郡北上面 金相雲
一〇九〇〇	慶南金海郡上東面	同	金海郡金海邑 襄基哲
一二三一二	平北宜川郡山面	同	京城府黃金町 山下佐太郎
一一七七六	江原道川郡縣一面 飲谷面咸南安邊郡 鶴城面	同	德源郡赤田面 朴寅淑
八九〇五	咸南永興郡仁興面 鎭坪面	同	元山府錦石洞 代表者 永興郡鎭坪面 金活鉉 成華洙
八六八七	平北寧邊郡古里面	同二十八日	定州郡定州邑 代表者 成川郡四佳面 梁朴永根海煥

黃昏

韓雪野 作 安夕影 畵 【74】

암투(一)

경재가 사장실로 들어가니、마츰 려순이가 혼자 잇다。

「사장、어디 갓습니까」

「네、지금 막 손님 하고 점심 잡수시러 나가섯습니다」

「마츰 잘왓군……」

하다가 경재는 속으로「이제부터 점심시간에 와야겟군」하는 생각이 나서 혼자 빙글 웃고 잇다。

「참、현옥씨가 와잇지요?」

「네」

「그저께 사장이 말슴하시드군요。그날밤으로 온다구요」

「네、어저께 잠시 집에 들렷서요」

그리자 려순은 속으로「요새 매우 바뿌시겟군요」햇、주고 십헛스나、그리기도 무엇하고해서 짐짓 잠자코 잇다가 경재가 다시、

「오늘밤에 기시겟서요?」

하고 못는 말을 바다가지고

「네、저는 잇겟습니다만……바뿌실텐데……」

하고 겨겨거 추밥하는 우숨을 보낸다。

경재는 그제야 요새 며칠 차자가지못한것과、현옥이가 와잇는것에、무슨 관련이나 잇듯이 려순이가 생각하고 잇는것가티 생각되어서、

「참、어저께밤에는 꼭 놀러가젯는데、마츰 얼마전에 동경서 돌아온 친구가 차지와서……참 요전에 한번 얘기 해지요。동경서 친구가 와잇다구……」

하고 천새하여 려순을 처다본다。

「네 그런 기억이 잇습니다만」

경도 사람이라지요?」

「네、네、바루 그사람입니다」

그때 꼭 사람으로 갓다가 요새 또 서울 와서요。취직 소개를 좀 해달라는데……」

「취직이요?」

「네……시골가서 이것 저것 해봣스나、아름아、고향이지원 하고 오래 외지에 가잇서서 모든것이 생소하고、또 게다가 꾀리표까지 부러노하서 아무일도 해먹겟드라구요。해서다시 올라와서는 공장에라도 좀취직하겟다고 하는데 온 어쩌될는지……」

「이회사에요?……공부도 만히 한사람이라면서요」

「공부도 공부지만 사람이 참 조아요。고생도 만히 겪거보고……도 성질이 퍽 저실한 사람이에요。그리고 무슨 놈흔 지위를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요、몸도 건강만 하면서、자기는 공장이 조타는군요」

「공장에서 오래는 얼에 계라까 주재소두、파장에 모려서 우고 하나씩 불러서 주소、성명、변명 가튼걸 못고는 이차여오라구 하드라나요。아주 큰 커다란 모래섬을 어깨에 메는해보이는 사람두 가슴까지 찬 산이 처음에는 그만 때려 트리는데、자신이 안 나드래요。한걸 죽을 힘을 다해서 가까스루 들어메엿드니 그담은 쌍섬에 적는것가튼 혈흡을 손바닥에 팍팍어주기에、드러다보니까 소우(牛)처가 찍혀젓드래요 하하하……」

「호호、아마 거운이 세단 얘기지요?」

「글세 그도 무슨 뜻인지는 알지못한대요 하지만 어쨌든그것이 그시험에서 중과되엿다는 증명인 모양이드라구요。그래서 그담 시험장으로 가니까、순사를 조사해보구 이어 한 테신에、공장에 편한 간단한 상식을 못기에 생각나는대로 대답햇드니、국어를 어서그렇게 잘 배웟느냐구 하드래요 해서 무심히 중경 잇섯다구하면、오-그러냐………하고유심히 보드니만 대하도로 일단다구 하드래요」

「호호호 너무 아는것도 해이군요」

「글세 아마 그럴거지요」

하고 경재도 웃는다。

「사장과 말슴해 보지요。그마지것이야 안되겟서요」

「글세、온 그런것까지 사장과 말하기도 무엇하고……해서 이때가 공장주임과 우선 부탁해 볼가 합니다。그러나 알흘오사람을 주리라는 중이니까……」

「아니 그리지 마시구、사장과 말슴해서、사무실에 운동해보시지요」

「어디 그러케 자리가 잇습니까。그리고 또 그도사무실이기는 데는 히망하지 안허요。꼭 들어 백여서 글이나 쓰는것은 그의 성격에 맛지안쿠、또 사실 그는 시골가서도 공장가튼데만 운동햇섯대요。집소공장 작공 체용시험을 보앗다는데、참 우순 얘기가 만트군요。다른시험은 요 행 파스햇는데 구술시험에 떠러젓다나요」

하고 경재는 그(朴英喆-親舊)의 이얘기를 다시 생각해보앗스나、원체 알지못하는 지방의 이얘기고、또 그의말이 너무도 복잡해서 대강 대강、기억에 남은 줄거리를 취가며 말을 이엇다。